

## 헝가리의 유동성위기 지원내역과 전망

### 1. 국제 금융기구의 대 헝가리 구제금융 지원내용

#### 가. 국제통화기금(IMF)

##### □ 123억 유로 규모의 대기성차관 제공

- 지난 11월 6일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 IMF)은 헝가리에 대한 대기성 차관(Stand-By Arrangement) 지원 승인을 발표하였음.
  - 차관의 규모는 약 123억 유로(SDR 105억 또는 USD 175억)이며, 집행기간은 17개월로 즉시 인출 가능한 금액은 49억 유로(SDR 42억 또는 USD 63억)이고, 이후 개혁정책 이행 사항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통해 5회에 걸쳐 분할 집행될 예정임.
- 10월 13일 지원 약속 발표 이후, 1개월 내에 IMF의 긴급 금융지원 절차(Emergency Financing Procedures)에 따라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지원 금액 초과한도<sup>1)</sup> 요청이 받아들여져 지원금액이 헝가리 IMF 출자할당액(Quota)<sup>2)</sup>의 1,015%에 달함.

##### □ 재정수지 개선은 긍정적이나 금융산업 취약

- IMF는 최근 헝가리가 경험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 금융기구의 유동성 지원 외에 헝가리 정부의 긴급 재정정책 강화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함.

1) 일반적인 경우, IMF Quota의 100%가 연간 지원액 한도이며, 누적하여 총 300%까지 지원함. 단, 긴급금융 지원절차 등에 따른 이례적인 경우, 초과 한도를 요청할 수 있음.

2) 회원국의 경제력 및 무역량에 따라 정해진 출자 분담금액(헝가리의 경우 SDR 1,038.4)

- 또한, 2006년 이후 긴축 재정정책을 통하여 재정수지 적자구조가 개선되어 가고 있는 점, 2008년 2월 외환제도를 제한적 변동환율제<sup>3)</sup>에서 자유변동 환율제로 수정하여 물가관리 정책의 자율성이 강화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반면, 금융산업은 헝가리 경제의 최대 취약점으로 은행부문 자본비율 유지 제도 및 관리감독 기능 강화 추진이 IMF 프로그램에 포함될 것임.

□ 중점 개선권고 분야는 은행 유동성 관리

- 단기적으로는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성장 잠재력을 제고 하는 것이 IMF 프로그램의 목표이며, 헝가리 정부 및 EU와 토론을 거쳐 각종 개혁 정책안에 합의한 상황임.
- 자국통화 및 외화의 적절한 유동성 유지, 은행부문 자본 확충, 재정지출 축소를 통한 장기 채무 안정성 확보 등이 골자임.

<표 1> IMF 프로그램 주요 내용

분야	목표	내용
은행감독	은행부문 자생력 제고	- 자본 확충 - 은행간 대출에 대한 보증 펀드 조성
재정수지	GDP 2.5% 이내로 적자폭 감축	- 공공부문 규모 축소 - 저임금 연금수급자는 특례 적용

자료: IMF 보도자료, 2008. 11. 6.

나. 유럽연합(EU) 및 세계은행(WB)

□ EU, 65억 유로 지원

- 유럽연합 경제재무장관이사회(European Union ECOFIN Council)는 11월 4일 헝가리 앞 65억 유로 규모의 금융지원을 결정하였으며, EU가 요구하는 경제 정책 및 금융조건을 담은 양해각서(MOU)와 차관계약이 11월 19일 체결되었음.
- 최초 집행은 20억 유로 규모로 금년 중 실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집행위원회(EU Commission)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여 헝가리에 대출하게 됨.

3) 환율 변동폭을 유로화 기준환율에서 상하 15%로 제한

- MOU에는 총 4회에 걸친 분할집행 관련 헝가리 정부의 정책이행 조건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책제안들은 향후 EU의 수렴정책(Convergence Program for Hungary)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임.

<표 2> 분할집행 일정 및 주요 정책이행 조건

순번	최대 집행액	예상시기	주요 정책이행 조건
1	20억 유로	'08. 4분기	2009년 예산 수정안(재정적자 목표: GDP의 2.6% 이내, 각종 재정지출 감축방안 <sup>주)</sup> 명시)의 의회 부의
2	20억 유로	'09. 1분기	- 2009년 예산 수정안 국회 의결 및 지속적 재정관리 결과 가시화
3	15억 유로	'09. 2분기	- 독립 예산관리기구 신설 등 재정개혁 지속 - 은행부문 지원제도 도입 및 감독기능 강화 - 노동시장 구조개혁
4	10억 유로	'09. 4분기	- 새로 마련될 재정관리 원칙에 따른 2010년 정부 예산안 작성 - 지속적인 연금제도 개혁 추진

주: 공공부문 명목임금 동결, 공무원의 연중 13번째 월급 폐지, 연중 13번째 연금의 한도(HUF 8만) 제정 및 조기 연금수급자에 대한 지급 폐지

자료: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European Community and the Republic of Hungary

□ WB, 10억 유로 지원

- 세계은행도 IMF와 EU의 대 헝가리 금융 지원 및 일련의 경제개혁 프로그램에 동참 의지를 밝히며, 10월 28일 10억 유로 규모의 지원 의사를 발표하였음.

## 2.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가. 주요 경제지표

□ 10월말 환율 상승세 주춤, 11월초 상승 재개

- 10월 22일 헝가리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300bp 인상 조치 및 10월 26일 IMF 협상단과 헝가리의 지원조건 합의 발표 등으로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던 헝가리 포린트화의 환율 상승은 10월 말 잠시 하락하는 듯 하였으나, 11월 들어 다시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

- 국제 금융기구의 공동 지원으로 헝가리 경제의 회생 가능성에 대한 국제사회 신뢰가 투자자들에게 전달됨으로써 환율시장이 다소 안정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다소 거리가 먼 결과이며,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통한 경제안정 회복에는 보다 장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임.
- 유럽의 전반적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둔화 현실화 및 가계부문 부실 채권 급증으로 인한 소비 급감 등 실물 경기 부문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환율시장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그림> HUF-EUR 환율변동 추이



자료: 유럽중앙은행(ECB)

### □ 금융산업 부실 우려 주가하락 반영

- 주식시장도 환율시장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10월 중반이후 급격한 지수 하락을 보이다 국제적 금융지원 발표로 인해 10월말 약 한주에 걸쳐 반등하던 종합주가지수는 11월 들어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부다페스트 주가지수(BUX)는 헝가리 최대 은행인 OTP은행과 에너지 기업인 MOL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최근 헝가리 경제부문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금융산업의 부실 우려가 주가지수에 매우 크게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안정세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6월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으며, 헝가리 통계청 발표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대비 5.1% 증가를 기록하여 2006년 8월 이후 최저치를 보였음.

- 또한, 9월 명목임금이 전년대비 8.4%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은 전년 동기대비 0.5% 하락한 것으로 조사됨.

## 나. 재정정책

### □ 약 51억 유로 규모의 기업보조금 제공

- 11월 13일 개최된 특별 의회에서 헝가리 국가개발경제부(Hungarian National Development and Economy) 장관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2009~10년간 1조 4천억 포린트(약 51억 유로)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재원은 모두 이미 예산 배정된 기금들의 용도 전환을 통해 조달될 것임.
  - 지원형태별 재원 배정내역을 보면, 중소기업 대출 보증 6,800억 포린트, 은행의 기업대출 인수 2,600억 포린트, 이자 보조금 3,000억 포린트, 중소기업 직접대출 1,400억 포린트, 기타 200억 포린트로 구분됨.
- 약 2,300여개의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직접 보조금 지급, 대출 보증, 이자금 지지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EU 기금인 薪헝가리개발기금에서 5천억 포린트, 薪헝가리지방개발기금에서 4천억 포린트가 지원될 것임.
- 고용 규모를 유지하는 기업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의 경우 추가 보조금이 지원되며, 투자보조금 지원 범위도 확대할 계획임.

### □ 2009년 예산은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

- 헝가리 국회는 11월 17일 정부예산 상한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에 따라 2009년도 헝가리 정부의 예산은 2008년 수준에서 유지되고 2010년에는 예상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 내에서 예산 증액이 가능함.
  - 이에 따른 초과 세수의 50%는 공적채무 상환 재원으로 사용되며, 나머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조세 감면에 사용됨.
  - 또한, 대통령, 감사원, 중앙은행에서 각각 위촉한 3인으로 구성된 예산위원회(위원장은 대통령이 위촉한 1인)가 설치되어 독립적으로 예산지출을 감시하게 됨.
- 또한, 2009~10년 중 예정되었던 조세 감축방안은 무기한 연장되었음.

## 다. 향후 경제전망

### □ 2009년 마이너스경제성장 전망

- IMF는 2011년 이후에나 헝가리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에서 회복될 것이며, 이후 3%의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언급하였음. 또한, 헝가리 정부를 포함하여 많은 경제 전문기관들이 2009년 헝가리의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음.
- 헝가리 쥘랴니(Gyurcsany) 총리는 11월 19일 국회 연설을 통해 세계금융 위기로 인하여 헝가리 경제는 향후 18개월 동안 침체에 진입할 것이며, 2009년 -1%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함.
- 한편, 기업지원 프로그램의 경기 부양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해당 재원이 이미 예산 배정된 기금에서 전용되어 신규 재정지출로 보기 어렵고, 지원규모가 GDP의 2.5%에 불과하기 때문임.
- 또한,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지원강화는 헝가리 산업의 발전방향과 상치되는 정책이며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저해할 수 있다고 평가됨.

### □ 재정수지 점진적 개선 전망

- 정부 예산 동결안의 국회 통과로 경기 위축에 따른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재정수지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IMF 및 EU의 요구사항들에 맞춘 재정 개혁이 시행되어야 하나, 이 과정에서 연금 및 각종 사회보장 혜택 감소에 따른 국민들의 반발과 정치적 분쟁이 잠재적 장애물로 남아 있음.

### □ 국제적 금융지원으로 단기 유동성 위기는 회피

- IMF, EU 및 World Bank의 구제금융 지원 합계액은 200억 유로(약 258억 달러)에 달하여 헝가리의 단기 외채원리금 상환부담을 상당부분 경감시켜 줄 것으로 기대됨.
- 헝가리의 외환보유액은 216억 달러(2008년 10월 현재)이며, 12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외채는 약 400억 달러 규모로 알려짐.
- 한편, 헝가리 중앙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6월말 헝가리의 총외채 규모는 약 1,687억 달러이며, 2009년에는 1,732억 달러로 증가될 전망이다.

<표 3>

3개년 헝가리 경제 전망

단위: %

구 분	EIU			BMI		
	2008	2009	2010	2008	2009	2010
경제성장률	1.4	-1.5	0.5	1.1	-0.8	2.6
재정수지/GDP	-3.4	-2.6	-2.6	-	-3.7	0.0
실업률	8.0	8.5	8.4	7.8	8.0	-

자료: Economist Intelligence Unit, Business Monitor International

전문연구원 구윤정 (☎ 02-3779-6665)  
E-mail : [kooyj@koreaexim.go.kr](mailto:kooyj@koreaexim.go.kr)